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득의지추'

장수군, 감성마케팅·라이브커머스·드라이브스루·온라인마켓 프로모션 진행 등 나서

장수군은 2021년을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좋은 때'라는 득의지추(得愜之秋)를 목표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

▲젊은 층 대상 새로운 '감성마케팅' 추진

장수군은 사과에 이야기를 입혀 '사과(謝過)하고 싶은 날 장수 사과'와 '고지대의 일교차 및 겨울까지 비바람을 견딘 강한 끈기의 장수 사과', 사과송과 합격송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및 케이블 TV 광고를 통해 10~30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유튜브는 1개월만에 15만회 이상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OCN·JTBC·tvN 등 시청률이 높은 방송채널을 통해 서울권역 215만뷰, 경기권역 119만뷰, 전북권역 90만뷰 등 광고 영상이 노출돼 도시의 잠재적 젊은 고객들에게 장수군을 각인시켰다.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드라이브 스루 등 새로운 판매전략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판매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수군은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 중 드라이브스루,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스트리밍을 새롭게 시행해 판매에 집중했다.

그 결과 9억이상의 매출을 실적을 보였으며 일부 제품은 조기품절 되는 큰 성과를 보여 새로운 판매전략에 긍정적인 청신호를 보였다.

▲온라인마켓 판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 프로모션 추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라이브커머스 모습.

장수군은 설·추석 명절 상차림 및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장수물, 우체국 소광물(지역브랜드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20%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전월 대비 40%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또한 연말연시 특수를 목표로 12월에 최대 40%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 '11번가 장수군 특별할인 판매전'에서 1시간 만에 한우 500세트가 완판됐으며, 사과(3.5kg) 500상자 이상이 팔려 투입비용 대비 300%이상의 매출 달성을 이뤘다.

▲서울, 전주 등 도시심 중심 대형전 광판 홍보 추진

고품질 장수 사과, 한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 게이트(13개) 및 전주 기린사거리에 9월부

터 11월까지 3개월간 대형전광판 광고를 시행했다.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은 1일 방문자가 15만 이상, 인근에 신세계 강남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등이 위치한 유동인구 밀집 황금 상권 지역으로 터미널 전광판 광고를 통해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지역인들에게 장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2021년 장수군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축산유통과를 신설하고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며 득의지추(得愜之秋)를 실현했다"며 "2022년에는 탄탄히 다져온 기반으로 장수군 농특산물 마케팅이 본격 성장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무료급식 지원단가 4000원으로 인상

장수군이 2022년부터 결식우려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의 지원단가를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결식우려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단가는 아동 무료급식 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장수군은 노인들에게 질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무료급식 예산 4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무료급식 지원단가를 1,000원 인상하고, 식사배달 대상자를 130여명 더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무료급식 제공기관 등이 휴관되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과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에서는 12월부터 결식우려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22년부터는 기존 식사배달 사업의 대상자 150명에 130여 명을 더해 총 280여 명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두 가지로 무료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식사배달 대상자 추가와 1식 지원 단가상승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수군의 어르신들이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만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5% 이상, 그 중 독거노인이 10%를 차지하고있는 고령화 지역으로 결식의 우려가 높은 어르신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 모집

장수군이 지역 내 주력산업 중 사 청년을 응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북형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조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수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2003년생~1982년생)으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교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d.j.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t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월 3일부터 27일까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 조성사업 확대 시행

진안군은 주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민 안전보호 환경 조성사업'을 2022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주거지역 공동화와 기존주택의 노후화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군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택 외부 방범시설 설치비만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는 주택 내부에 안전바, 미끄럼 방지타일, 어린이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군은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무주군이 무주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 올해 문제점 병충해 등의 실용교육으로 무주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1월 11일부터 1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민마당에서 총 10회 11개 품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통 과정은 복숭아, 인삼, 블루베리, 고추 등 4개 품목이며, 사과, 포도, 복분자, 천마, 왕대추, 고구마 6개 품목은 읍·면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이삼기후로 인한 도열병 발생으로 벼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었던 한해인 만큼 벼 병해충 방제 교육을 6개 읍·면 품목 교육의 전 과정에

포함시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 수업을 원하는 농업인의 자율 참석으로 진행된다.

단, 참석을 원하는 농업인은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해야 하며, QR코드나 접종 확인서 등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증명을 해야 한다. 만일, 접종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참가를 원할 경우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농업지원과 신상범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에게는 기초지식을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 농작업과 작물재배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비대면 종무식으로 2021년 마무리

진안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비대면 종무식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재난소득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과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여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는 수물의 아픔을 겪은 진안군민의 권리 찾기라며 진안군민의 20년 숙원인 용담

댐 광역상수도 진안 전지역 공급문제를 해결하고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전주시와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국가예산 확보, 군민 참여행정 실현 등 여느 해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속에서도 진안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모 선정

국비 30억원 확보... 2024년까지 60억원 투입해 센터 건립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해 군에서 조성 중인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심사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지확보 및 입지조건, 사업운영주체, 지역 특용작물산업 및 지자체

정책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진안군과 평창군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센터에는 약용작물 효능분석·제품개발 연구시설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게 되며 진안군에서 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진안홍삼연구소를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센터 건립을 통해 진안인삼을 비롯한 작약, 천궁, 천마 등 다양한 특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

업 육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약용작물 생산량 증대와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가치사슬 강화로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달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고령 영세농의 생활 안정화, 가공업체 매출액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가능성 약용작물의 산업화 기반 확보와 고부가가치 연관 산업 육성의 기초 토대 마련을 위해 진안홍삼연구소와 협력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